

# 통합단체장 자질, 경제 발전 추진력·행정 전문성 갖춰야

광주일보·리얼미터 - 전남광주통합단체장 지방선거 여론조사

소통과 통합 리더십도 중요...정치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후보 선택 최우선 고려 사항에 행정 경험 및 성과와 도덕성 꼽아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첫 통합 특별시장의 최우선 자질로 '경제 발전 추진력'을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관심 속에서 시도 통합에 따라 해마다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받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을 특별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첫 특별시장에게 '정치적인 요소'보다는 경제 발전을 위한 '행정 전문성' '소통과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 초대 통합단체장을 선택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로 '행정 경험 및 성과'와 '도덕성 및 청렴도'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 등 지역 유권자들은 '제대로 행정을 펼칠 사람'을 통합시장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광주시와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시장에게 경제 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통합 자치단체를 이끌 초대 통합단체장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을 묻는 질문에 '경제발전 추진력'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행정 전문성' (25.4%) '소통과 통합 리더십' (23.7%) 순이었다.

이는 차기 통합단체장으로 경제와 행정리더십을 모두 균형 있게 갖춘 인물을 기대하고 있다는 여론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정치적 영향력'은 15.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경제 발전 추진력'을 중요 자질로 꼽은 응답자는 지역별로 광주시(30.4%)에서, 연령대별로는 만 18~29세(37.6%),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41.6%)에서 전체 결과 대비 높았다. '행정 전문성'에 대한 응답자는 광주시(26.0%), 40대(30.1%), 개혁신당(38.4%) 지지층에서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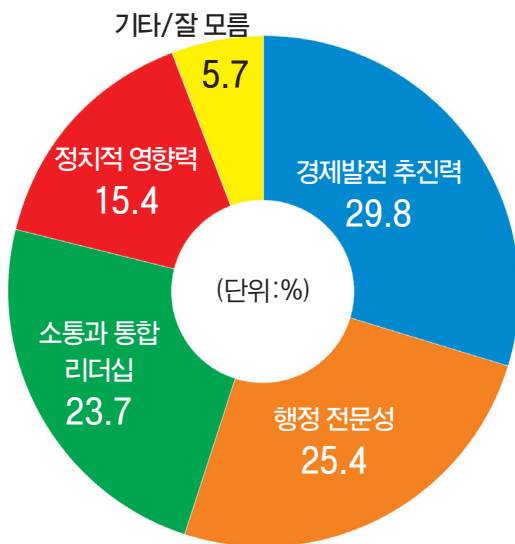
또 '후보 선택 시 최우선 고려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행정 경험 및 성과' (39.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후보의 '도덕성 및 청렴도' (24.0%)와 '정책 비전 및 공약' (21.6%)이 높은 비중을 보이면서 주요 고려 요소로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최우선 고려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도 '정치적 판단'은 밀려났다.

'소속 정당' (6.2%)과 '광주·전남 출신 지역' (5.6%)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에 그치면서 지역민은 '실무형 특별시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 경험 및 성과'를 꼽은 응답은 지역별로는 광주시(43.1%)에서, 연령대별로 40대(47.8%)에

■ 통합단체장 최우선 자질



서, 성별로는 여성(40.5%),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42.4%), 지지 정당별로 진보당(43.8%)에서 전체 결과 대비 높았다.

'도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응답자는 전남도(27.0%), 60대(29.5%), 국민의힘(34.1%) 지지층에서 두드러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이며 응답률은 7.1%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광주특별시장 지역 추진 사업

(사례수:1502·단위:%)

청년일자리 창출/지역특화산업 육성	29.9
인구 유입 대책	16.2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14.2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시·도 자원 공유	14.1
광역 교통망 확대 및 인프라 구축	12.9
교육 여건 개선/지역 인재 양성 구축	8.4
기타/잘 모름	4.3

## 통합특별시장 출범 이후 지역 추진 사업

### 청년 일자리 창출·지역특화산업 육성

인구유입대책·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높은 응답

5060세대가 청년일자리 강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세 명 중 한 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범 이후 가장 중점을 뒀어야 할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선택했다.

"전남광주특별시장이 출범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9.9%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 사안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 거주(30.7%), 50대(37.3%), 여성(35.9%), 유보층(37.7%), 무당층(35.3%)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18~29세(24.8%), 30대(27.1%), 40대(27.4%)보다 50대와 60대(32.8%)가 청년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뒤이어 '인구 유입 대책' (16.2%)이 높게 나타났는데, 인구소멸지역이 많은 전남(17.2%)에서 광주(14.8%)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만 광주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광주시 동구의 경우 22.5%가 인구 유입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문항에는 60대가 높은 필요성(20.4%)을 강조했다.

지역민들은 지역 산업을 육성해 청년일자리 창출 통로로 삼고, 이를 통한 인구 유입 효과가 필요하다는 데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가 14.2%를 기록했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가 위치한 광주 인접권(17.9%)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광주 인접권 응답자들은 인구 유입대책(16.7%)보다 혁신도시 활성화가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봤다.

또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및 시·도 자원 공유' (14.1%), '광역 교통망 확대 및 인프라 구축' (12.9%) 등 사업도 두 자릿 수를 기록, 높은 필요성을 보였다.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은 남구(17.8%)와, 전남 중서부권(16.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광역 교통망 확대가 시급하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다른 사업보다도 높게(22.8%) 나타났다.

이밖에 '교통 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 구축'은 8.4%를 기록했는데, 지역별로는 광주 동구(12.3%)와 남구(12.2%)에서 높은 반면,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전남 중서부권과 남부권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기타·잘 모름'은 4.3%였다.

이번 조사는 광주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광주시와 전남도 내 만 18세 이상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통신문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2.5%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7.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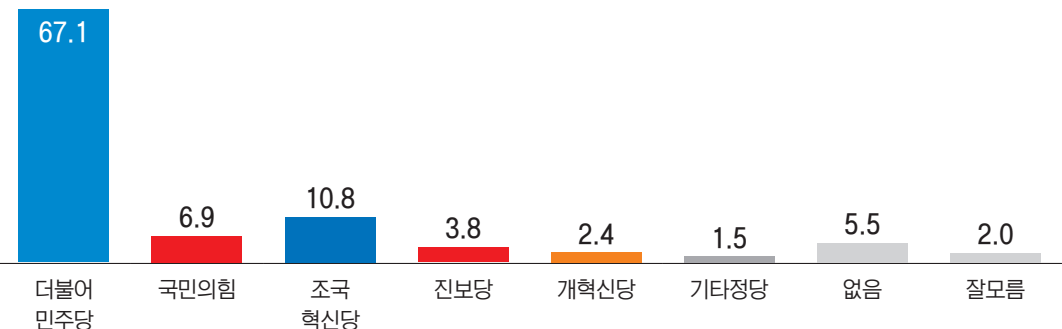
## 정당지지도, 민주당 67.1% 압도적 1위

조국혁신당 10.8%

국민의힘 6.9%·진보당 3.8%

■ 정당지지도

(사례수:1502명, 단위:%)



광주·전남 행정통합 국면에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광주·전남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광주일보 '광주전남통합단체장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평소 지지하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7.1%로 가장 많았다.

10명 중 7명가까이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은 10.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국민의힘(6.9%), 진보당(3.8%), 개혁신당(2.4%)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정당은 1.5%, 무당층은 5.5%, 없음은 2.0%였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전남에서 68.4%로, 광주(65.4%)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세부적으로 광주에서 광산구가 69.4%, 전남에서 중서부권이 75.1%로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71.9%)이 남성(62.4%)보다 민주당 지지세가 많았다. 조국혁신당은 여성(8.5%)보다 남성(13.0%)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성(3.8%)보다 남성(10.1%)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 민주당 지지는 70세 이상(73.3%), 60대(73.8%), 50대(72.3%), 40대(71.2%)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본점

여신사업부

양산지점

운암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문흥지점

동림지점

각화지점